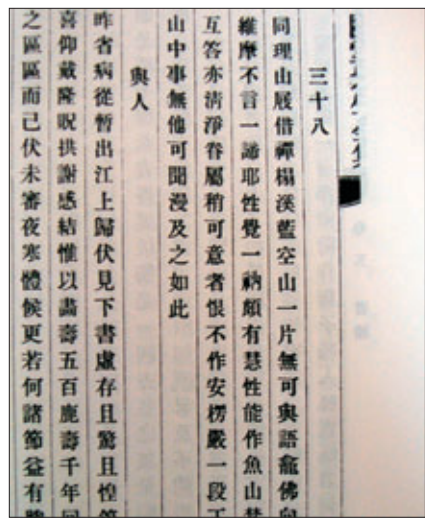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

자신을 은근히 유마힐에 비유

〈완당전집〉에 수록된 〈여초의〉38신은 어느 시기에 쓴 것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이 편지에 드러난 추사의 행적은 구도적이고도 불교적인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드러난다는 점에서 그가 과연 어떠한 인물로, 붓을 내왕하던 시기에 보낸 편지일지 여겨진다. 특히 과천 시절 추사는 불교와 차에 심취했고, 초의에게 경전의 참증(參證)을 요구하는 편지를 여러 번 보낸 적이 있다. 따라서 "나막신을 함께 챙겨 산 속 절에서 선탐을 빌렸다"는 내용은 그가 붓은사에서 머문 것을 이리 표현한 것이라 짐작되는데, 수행에 몰두한 그의 일상이 잘 드러난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완당전집〉에 수록된 〈여초의〉38신.

나막신을 함께 챙겨 산 속 절에서 선탐을 빌렸지만 한 조각 텅 빈산엔 더불어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감불의 부처님이 사람에게 말하려다 말하지 않으니 이는 유마힐의 불언의 진리인가요. 성문영각의 승려는 자못 지혜로운 본성을 지녀서 어산의 법패와 솔바람, 골 물소리와 서로 화답하시니 또한 청정한 권속이라 조금 마음이 같만합니다.

〈안분수경〉과 〈능엄경〉의 일단을 공부하지 못하여 마침내 문사수(聞思修)로 들어갈 뿐인 것이 한스럽습니다. 산중의 일은 들려줄 만한 다른 일이 없어서 부질없이 이와 같은 것을 말했습니다. (同理山 借禪榻溪藍 空山一片 無可與語 龜佛向人欲語而不語 是維摩不言一諦耶 性覺一納 頗有慧性 能作魚山梵唱與松風澗水聲互答 亦清淨眷屬 稍可意者 恨不作安楞嚴一段工夫 竟聞思修入耳 山中事無他可聞 漫及之如此)

선탐(禪揚)은 좌선할 때 앉은 의자이다. 절에서 선탐을 빌렸던 말은 유학자인 그가 승려들의 참선

산속 절 선탐에 앉아 좌선하며

유아독존의 실체 · 공의 도리 깨달아

방법을 차용하여 수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 참선하는 자신의 모습을 이리 표현한 것이라. 또 "텅 빈 산엔 더불어 말할 사람이 없다"한 것은 유아독존(唯我獨存)의 실체인 자신이 공(空)의 도리를 알았다는 의미이다. "유마힐(維摩詰)의 불언의 진리가 아닌가"라고 초의에게 되물음은 초의의 공감을 유도한 것이라 짐작된다. 유마힐은 추사가 이상형으로 삼았던 재가불자이다. 부처님의 속제자로, 인도 비아리국의 장자이다. 보살행업을 잘 닦은 인물로, 수행이 높았다고 전해진다. 대승보살의 실천도를 강조, 세속에서도 불도의 실천과 완성을 이룩할 수 있다는 모범적 사례를 보여주었

던 인물로, 재가신자의 이상형이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유마힐이 병중에 있을 때, 문수보살이 여러 성문과 보살을 데리고 문병을 왔다. 이 때 유마힐은 불가사의한 해탈상과 무주(無住)의 근본으로부터 일체법이 성립되는 것과 삼라만상이 불이(不二)의 일법(一法)임을 드러내 보였고, 불가언불가설(不可言不可說)의 뜻을 나타내 문수보살을 감탄케 했다고 한다.

추사가 말한 유마힐의 불언(不言)은 바로 불가언불가설(不可言不可說)을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자신은 비록 속세에 살지만 유마힐처럼 살아가는 사람임을 은근히 드러낸 듯하다. 이어 지혜로운 본성을 지닌 승려들이 "어산의 법패와 솔바람, 골 물소리와 서로 화답하시니 또한 청정한 권속이라 조금 마음이 같만"라고 한 것은 노년기 그의 삶의 흔적을 드러낸 것이라 하겠다. 한편 〈안분수경〉과 〈능엄경〉의 일단을 다 터득하지 못했던 그는 "마침내 문사수(聞思修)로 들어갈 뿐인 것이 한스럽다"는 대목에서 자신의 분발심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문사수는 삼혜(三慧)로, 개혜(開慧)와 사혜(思慧), 수혜(修慧)의 단계로 수행하여 지혜를 얻는 것이다. 경전을 견문하여 생긴 지혜와 도리를 생각하고 생각하여 얻은 지혜, 선정을 닦아 얻은 지혜를 말한다. 속세에 살던 그가 이룩하고자 했던 불도의 실천과 완성의 꿈은 이미 추운 겨울, 학림암 선방에서 해봉선사와 나눈 공각소생(空覺所生)의 담론에서 짙은 것인지도 모른다.



박동준(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장)



(사)자비신행회는 ... 불교의 자비사상을 근본으로 1999년 재가불자들의 교육과 자비실천을 목표로 창립했다. 부설기관 운영하며 광주지역 대표 순수불교사회단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동안 노인복지사업을 통해 2만여개 자비의 도시락과 담프그램을 7년째 운영중이다.

도시락에서 수행까지

재가불자들의 나눔공동체 (사)자비신행회

"나와 남이 결코 둘이 아닌 하나임을 아는 연기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내가 있어 아름다운 세상, 우리가 엮어내는 감동과 희망의 이야기를 만듭니다. 서있는 분에게는 서서, 설 수 없는 분에게는 앉아서, 가슴에서 가슴으로 봉사한다. 두 손으로 공손하게 봉사하는 과정도 수행의 일부다. 이 모두를 자기를 낮추고 돌아보는 계기로 삼자."

이웃과 함께 보현행을 실천해오고 있는 자비신행회의 모토다. 이곳의 회원들은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서서 봉사를 한다. 내가 먹는 것 이상으로 부족함 없이, 정결하게 음식을 차린다.

자비신행회는 재가신자들의 책임기 모임에서 시작했다. 하나들 회원이 늘어 봉사활동의 뜻이 모아졌고 십시일반 회비를 모아 자비실천으로 뜻이 모아졌다. '우리는 한뿔'이라는 불교의 자비사상을 근본으로 불자들의 교육과 자비실천을 목표로 1999년 (사)자비신행회를 창립했다. 호남지역 대표 불교단체로 불법의 진리를 실천하고 세상에 펼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자비신행회를 만나봤다.

이웃들을 위한 열린 나눔의 공간

광주 동구 장동에 위치한 자비신행회 행복한쉼터는 매일 아침 11시면 지역 어르신들의 만남의 장소가 된다. 지난 2012년 9월 10일 지역의 소외계층(독거노인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시작한 '행복한 쉼터'는 매일 주 5회 점심식사를 제공한 것을 시작으로 급식, 미용, 공연, 생활필수품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증심사, 문빈정사, 영광사 등 지역의 사찰 신도들의 열성적인 자원봉사가 더해져 지금까지 120여 회 걸쳐 8,000여명의 어르신들에게 무료급식이 진행됐다.

워낙 음식이 맛있다고 소문이 나서 늘 사람들로 붐비지만, 많은 인원에겐 음식을 제공할 자원과 공간의 협소함으로 인해 인원은 회원제로 한정했다. 그래서 그 중 개별 면담을 통해 장애인, 독거노인을 우선으로 선정하여 음식을 대접하고 있다.

매일 이곳에서 점심을 먹는 김순희(72) 할머니는 "다른 곳에서도 여러 번 점심을 먹었지만 이곳만큼 맛있는 곳이 없었다"며 "늘 다양한 반찬과 봉사자들의 정성이 음식에 담겨있어 편안하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행복한 쉼터'의 모든 복지서비스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지원 없이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으로만 운영되는 순수자립형 구조를 갖는 것이 특징이다.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사업의 시작은 1999년 '어르신세대 밀반찬 지원사업' 으로부터 시작되었다. 15년째 매주 4회(월요일~목요일) 지원되는

독서모임에서 봉사단체로 거듭나
도시락 배달·무료식당 운영까지
소외 이웃 위한 밥차도 호응 커
전남대 병원서 호스피스 봉사도

재가자 위한 불교 교육 매진
화엄학림으로 교양강좌도 진행
간화선 위빠사나 수행 지도

밀반찬은 월 106명의 봉사자들이 참여 반찬을 만들어 전체 2287세대에 배달하는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광주 불교계에서 가장 오래된 밀반찬 지원사업이다. 특히 대상 어르신들은 일 년에 봄 가을 두 번의 나들이 행사와 소원기금, 생활지원사업 등의 주 대상인원이 되어 반찬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지원사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자비신행회의 대표 사업 중 하나는 밥차 서비스다.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는 광주공원을 비롯해 대인시장, 말바우시장, 송정시장 등 광주지역 100곳에서 '십시일반 밥차'를 만날 수 있다. 2008년 4월 트럭을 개조해 주방이 갖춰진 차량으로 시작된 밥차는 2013년까지 180여회 어르신 무료급식을 제공해왔다. 한 번에 급식인원이 300~500여명에 이르니 혜택을 보는 이도 수만명에 이르고 있다. 각 기업과 기관 등에서 자원봉사를 함께하게 되면서 차이나공, 한화생명, 국세청, 스포츠초토, 원화사, 금선사 등에서 밥차를 지원하고 있다.

"따뜻한 밥상", "情 도시락" 다양한 이름으로 제공되는 밥차는 추운 시장 안 찬 바닥에서 자식들을 위해 행상을 하는 우리네 어머니들 같은 분들에게 따뜻한 정성을 제공하는 소중한 행사다.

자원봉사자 신재호(원효사 청년회)씨는 "저희가 어르신들에게 나눠드린 것은 단순한 먹거리만이 아니었습니다. 더불어 사는 이웃들을 위한 따뜻한 정(情)과 정성, 그리고 작은 것이라도 나누며 사는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그러한 세상이 구현되기를 바라는 작은 소망이었습니다."

의료봉사와 교육사업도

자비신행회의 봉사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의료봉사까지 그 손길이 미치고 있다. 두손모아 호스피스팀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화순전남대병원 호스피스 병



어르신식당 행복한쉼터에서는 매주 5회 무료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부설기관인 한꽃문화아카데미에서는 전문도인 양성을 하고 있다.

대행큰스님 말씀과 어린이들의 그림이 함께하는 2014 마음 다이어리

2014 마음 다이어리에는 이런 것들이 담겨있어요

1 하루 하루의 지침이 되어주는 스님의 말씀

2 새싹 같은 마음으로 담아낸 아이들의 그림

3 늘 지니고 다니는 뜻으로 풀 경전의 소중한

4 날짜에 구애 받지 않고 자유롭게 적을 수 있는 free note!!!

구입처: 한마음선원 본원 무진향·각 지원 중무소
온라인 구매: 한마음저널 공식 블로그 '한그루의 숲'
<http://blog.daum.net/hanjournal> (숲속가게 클릭)
문의: 한마음선원 본원 무진향 031-470-3118
한마음저널 편집실 031-470-3180



으로 한꽃 노인복지센터·외국인노동자센터·꽃문화아카데미, 재가 화엄학림, 자비나눔 봉사단, 두손모아호스피스 등을
1만 2천여개의 밑반찬을 독거노인을 위해 지원해왔고, 청소년 장학기금마련과 불교상담활동가 양성을 통해 청소년집단상

나누며 행복 찾아요

동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이들은 매주 목요일마다 어려운 환우가족들에게 도시락을 전달하고,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활동을 한다. 그야말로 환우들에게는 '관세음보살' 같은 존재들이다.

10년동안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이명옥 씨는 환우들에게 편안함을 줄 수 있어 기쁘다고 말한다. "호스피스 봉사활동이 생의 마지막을 보내는 환우들에게 정신적으로 편안함을 안겨주는 것을 느껴요. 작은 도움이지만, 기뻐하는 환우들을 보면 너무 행복해요. 비록 환우들에게 삶을 연장시켜 드릴 수는 없지만, 1~2달 남은 짧은 삶에서 시간의 소중함을 느끼게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자비신행회에는 어르신 소원기금이 있다. 후원자나 사찰에서기금을 전달하면 후원자명의 기금을 만들어 지원하는 활동이다. 대표적 기금인 '진여성 기금'은 어르신들 세대에 가전제품 등 소원하는 물품을 지원하는 기금이다. 꼭 필요한 물건과 평생 소원하던 바가 이루어지는 행복한 풍경을 만들고 있다. 또 뮤지컬기금이 있다. 다문화가정을 중심으로 영화나 연주회, 뮤지컬 등에 초청을 하여 공연 나눔을 실천한다.

여기에 연화사 봉사팀에서 소년소녀 가장세대, 조손 가정, 한부모세대를 위한 지원 사업으로 매월 1회 밑반찬을 만들어 배달을 한다. 보파리에는 쌀, 라면을 비롯한 생필품이 들어있다. 또한 소년소녀 가장세대 나눔보따리 지원을 위한 나눔바자회를 열고 있다.

자비신행회는 복지사업 못지 않게 교육사업에도 매진하고 있다. 재가 화엄학림은 부처님의 다양한 가르침을 일반인들에게 전달하는 교육프로그램이다. 그중 재가 화엄학림을 통한 불교강좌와 간화선과 위빠사나를 나누어 진행하는 수행프로그램 등이 운영중에 있다. 여기 빛고를MY리더스클럽과 불교힐링아카데미, 빛고를 자연사찰요리강좌 등도 수강생들에게 인기를 모으고 있다. 여기에 부설기관인 불교전문교육과정으로 2005년부터 재가불자들을 위해 운영되는 재가 화엄학림은 1년 과정의 평생교육원 시스템이다. 재가불자들의 전문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리더스클럽은 서울의 재가대대의 전문가 강사들을 초빙해 운영되고 있다.

특히 '멘토들과 함께 떠나는 힐링아카데미'는 현장 스님(대원사 회주), 목우 스님(선암사 강주), 해도 스님(중앙승가대 교수), 각목 스님(초기불전연구원 지도법사), 법인 스님(중앙종회 의원), 금강 스님(미항사 주지), 붓다락키파스님(보리수선원장) 등이 초청돼 100회의 강좌를 이어갔다.

수행을 통해 배움을 깨치는 것도 공부의 일환이다. '빛고를 위빠사나 수행'과 한꽃시민선방은 대표적 수행프로그램이다. 그중 붓다락키파스님과 함께 진행되는 자비명상 프로그램은 지혜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고 있다.

여기에 전문 다도(茶道)사범 양성과정인 '한꽃차문화아카데미'는 초급반 고급반 운영을 비롯해 시민들을 위한 차문화체험학습장을 마련하고, 차문화예절교

육과 다양한 불교계 행사에 차문화 보급에 나선다. 특히 상일중학교, 살레시오여중, 일동중학교 학생들을 위한 차문화교육은 학생들에게 다도를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다. 이외에도 김장김치 나누기, 어버이날 기념선물, 명절 선물, 영양제 지원, 빵과 우유지원 등의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스스로 만들어가는 나눔 공동체

그렇다면 자비신행회의 봉사활동이 이렇게 다각화된 이유는 뭘까. 사무처장 김영섭 씨는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전문영역들이 생기고, 자신의 재능나눔, 지식나눔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봉사활동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라고 말한다.

자비신행회는 누구나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현재 1200여 명의 회원이 활동 중에 있다. 실제 봉사활동 시간 1천 시간을 돌파한 회원들이 다수며 봉사시간 2천 시간을 넘긴 회원들도 많다. 매년 1년을 결산하는 행사에서는 광주광역시로부터 인증된 자원봉사자 인증표시가 회원들의 가슴에 걸린다. 봉사자는 이를 기쁘게 받아들인다.

거리에서 연탄을 나르고,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소외된 이웃을 찾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다. 하지만 이웃을 생각하는 봉사의 마음을 가지면 오히려 모든 것이 기쁨이 된다.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내게 필요한 것은 내 이웃도 필요로 하는 것이다. 내게 있는 것을 나누고 베풀어가는 마음만 있으면 된다.

자비신행회는 자원봉사자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나눔공동체다. 우리의 이웃과 사회를 위해 실천하여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들. 맘 흘려 번 돈, 가진 것을 귀하게 나누어 쓰는 것도 지혜다. 한 순간의 연민과 동정심으로 이루어진 일시적인 기부가 아니라 지속적인 생활 속의 자원봉사가 필요하다. 모두가 한 가지씩 나눔을 실천하며 아름답게 사는 자비로운 세상을 꿈꾼다.

자비신행회는 새해 오랫동안 추진해오던 사업인 '임종의 집' (가칭) 사업에 매진하고자 한다. 김 사무처장은 "생애 마지막 순간에 잡아드리는 '따뜻한 손길'이라는 타이틀로 무연고 어르신들의 생의 마지막을 함께 헤쳐리려고 한다. 더불어 진행중인 심심일반 바차 프로그램을 가급적단위 봉사프로그램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사업은 기존의 교육프로그램의 질적인 성장의 해로 잡아갈 계획"이라고 전한다.

어느 사회에나 소외된 사람들이 있다.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이웃과 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비신행회의 가까운 미래는 소외된 이웃을 돕고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고마운 분들을 위해 열려있다. 함께 생각하고, 함께 실천하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후원하는 사람도, 봉사를 하는 사람도, 후원을 받는 사람도 모두 주인공이다. 뿌리 깊은 나무처럼,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모두의 마음이 처음같이 아름답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mybuda@hanmail.net



교육프로그램도 활발하다. 위빠사나와 간화선 등으로 불자들의 수행을 돕고 있다.

전법일기

일요참선법회

비로자나 국제선원 일요 영어참선 법회에도 누구나 영어로만 말해야 한다. 그것은 외국인들과 함께하기 때문이다.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우리 선원을 찾는다. 미국, 영국, 캐나다, 인도, 스위스, 프랑스,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독일, 네덜란드 등... 이들 중에는 발심 출가하여 스님이 된 사람이 2명이나 된다. 이들이 찾아오는 루트도 다양하다. 인터넷으로 알고 온 사람이 가장 많고 다음은 안내자이다. 대부분은 참선을 하고 싶어서 찾아온다.

한, 두 번 참여하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매주 온다. 2회의 20분 참선과 20분 법문, 30분의 토론으로 이어진다. 참선을 20분하는 것은 처음 참선에 입문한 사람들이 20분이상 좌선자세를 유지하는 것을 고통스러워 하기 때문이다. 특히, 가부좌가 익숙하지 않는 외국인들은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제법 걸린다.

한국불교는 다른 나라에 비해 외국인들이 불교를 배울 수 있는 곳이 없다. 그리고 아직 '어떻게 한국불교를 전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국제포교에 원력을 가지고 싶지도 외국인들을 가르쳐 보고, 그 준비 작업을 하기 위해 만든 곳이 비로자나 국제선원이다. 처음에는 외국인을 위한 참선과 어린이, 청소년, 성인들을 위한 영어 포교를 중점적으로 시도하였으나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혔다.

대부분 외국인들의 한국체류 기간은 1년에서 길어야 2년이다. 어느 정도 수행이 익숙해지면 각자의 나라로 돌아가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가 어렵다. 또한 운영상의 문제에 부딪치게

'세계를 향한 전법도량' 발원



그림·박구원

된다. 그래서 지금은 한국 전통방식으로 사찰을 운영하면서 국제포교를 겸하고 있다. 일요 영어참선법회에 오는 외국인들은 자연스럽게 매년 열리는 어린이 영어담마캠프의 교사가 된다. 그중 인상적인 사람을 꼽으라면 조쌤이다. 그가 처음 선원에 왔을 때 그는 끊임없는 질문 공세를 퍼부었다. 불교에 대해, 삶에 대해, 수행에 대해 궁금증으로 가득했다.

그는 2년 동안 참선법회에 함께 했다. 그가 떠나는 날 나에게 한마디 설명하게 떠오른다. "스님, 정말 감사합니다. 스님이 제 인생을 얼마나 바꿨는지 모르실거예요." 그냥 아는 만큼 나누었다고 생각했기에 그의 지극한 감사표현이 부담되기까지 했다.

"제가 처음 스님을 만났을 때 저는 아주 불안한 상태였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면접을 가면 불안함에 손발이 떨려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스님과 수행을 하다 보니 그런 증상들이 모두 사라졌어요. 마음도 편해졌고요."

7년이란 시간동안 한 명이 오든 두 명이 오든 꾸준히 진행해온 결실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뿌듯하다. 그는 미국에 돌아가 한국 절을 찾았다고 한다. 또 어느 도서관에서 우연히 한국스님을 만나서 한국말로 "성불하세요" 했더니 스님들이 너무 놀라워했다고 한다. 이것이 국제포교가 아닐까? 굳이 해외에 나가지 않더라도 한국에 오는 외국인들부터 제대로 포교하는 것이야말로 중요한 일이다. 그들은 벌써 마음이 열린 상태로 오기 때문이다.

우리 선원은 법당이 하나이다. 이곳에서 요일별로, 시간대별로 어린이 영어담마스쿨, 외국인 영어참선법회, 청소년법회, 성인법회가 모두 이루어진다. 요즘은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거기에다 곧 재건축이 시작되기에 옮겨야 한다. 이곳 저곳을 알아보지만 가격이 만만치 않아서 걱정이 태산이다. 이리다 서울 시내에 세계를 향한 전법도량을 만들고자 한 나의 꿈이 좌절되는 것이 아닐까? 요즘 열심히 나오는 스위스 사람으로 심리학 박사이며, 영어참선법회에서 마음이 고요해졌다는 베로닉의 말이 떠오른다. "지금이야말로 한국불교가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고요해지도록 도와야 할 때입니다. 그녀의 말처럼 더 많은 세상 사람들을 품어 안을 수 있는 그날을 꿈꾸어 본다."



자우 스님(비로자나국제선원 선원장)

WWW.WDU.AC.KR

참인재를
키웁니다

실력이 참종은대

원광디지털대학교의 교수님은 이론적인 토대 위에
경험의 지혜와 노하우를 더해 참인재를 키우는 참스승입니다

특성화교육의 참된 리더 - 원광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문의 지식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사회복지 전문가

요가명상학과
인도 정통요가의 철학과 기술을
있는 요가교육의 메카

동양학과
술수문화를 체계화하고
현대에 응용·활용할 전문가

차(茶)문화
경영학과
21세기 한국 차문화의
현대화와 세계화를 이끌 리더

원광디지털대학교

2014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모집

입학상담
1588-2854

- ▶모집기간 : 2013년 12월 2일(월) ~ 2014년 1월 3일(금)
- ▶모집학과 : 웰빙건강학부 - 한방건강학과, 한방미용예술학과, 요가명상학과
한국문화학부 - 전통공연예술학과, 한국복식과학학과, 차문화경영학과, 한국어문화학과, 동양학과, 원불교학과
실용복지학부 - 사회복지학과, 중독재활복지학과, 언어치료학과, 경찰학과, 부동산학과, 얼굴경영학과

2014학년도 1학기 웰빙문화대학원 신입생 모집

- ▶모집기간 : 2013년 12월 30일(월) ~ 2014년 1월 13일(월) ▶모집학과 : 자연건강학과

❶ 자세한 사항은 원광디지털대학교 입학홈페이지(ENTER.WDU.AC.KR)를 참조하세요

특성화교육의 참된 리더 -
원광디지털대학교